

[소련 건국 100주년] 공산주의 청년동맹원들에게 - 마야꼬프쓰끼

소셜리스트



공산주의 청년동맹원들에게

-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마야꼬프쓰끼

죽음 —

감히 그런 생각 말라!

건설하고,

파괴하며,

재단하고

잡아 찢으며,

잠잠해지고,

들끓고

거품 일며,

웅성거리고,

말하며,

침묵하고

울부짖네 —

청년 군대는:

레닌주의자들.

우리는

도시 혈관들의

새로운 피,

논밭의 몸뚱이,

방직공장 사상의

실오라기.

레닌은 —
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우리는 슬픔에 잠겼네.

묘지(廟地)에로 실어 날랐네,

레닌의 일부인 —

몸뚱이를.

그러나 흙도,

타다 남은 재도

썩지 않겠지 —

레닌에게 있어 제일급 일은 —

사업.

죽음이여,

 나를 놓게나!

허위 판결.

바로 저

 하늘도

 변덕 부리지 않겠지.

레닌은 —

 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 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
 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레닌은 —

 끄레믈리의 행진으로

 살아나네 —

대규모 포로들의

 지도자.

대지는

 영구히 살아남을

 것이고,

저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네:

 레닌주의자.

또다시

 세상을 따라

 폭동은 번져 나갈 것이네 —

모든 눈두렁길 사이로

 꿈뿜은

 자신의 길을 낼 것이네.

레닌은 —

 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 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
 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무덤으로 내몰며

더 늙어 가는,
저 늙은 마귀할멈인,
죽음의 소식에:

«레닌»과 «죽음»은 —
적의 언어.

«레닌»과 «삶»은 —
동지의 언어.

더 단단히
슬픔을 거머쥐게.

가슴에
수심이 밀려드네.

우리는 —
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네.

레닌은 —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레닌은 나란히 서 있네.
바로 저기에

그가 있네.

그는 우리와 함께 걷고
우리와 함께 죽어 갈 것이네.

또다시
저마다의 탄생 속에 태어나네 —

힘처럼,
지식처럼,
깃발처럼.

대지여,
발아래서 떨게나.

모든 국경을 넘어
언어가 —

깃발처럼 휘몰아쳐 오르게 하게.

레닌은 —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지금도 살아 있으며,
레닌은 —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레닌 역시
초보부터
시작했으니까, —

삶은 —
천재의 작업장.

아래 나이로부터,
하층계급으로부터 —

레닌과 무리 속에
뛰어들려 기를 쓰네.

무서워 떨게, 궁전의 층층들이여!

미끼의 거래소여,

부서진 채
소리 높여
울부짖게나.

레닌은 —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레닌은
가장 뛰어난 인물들 중의
인물,

그러나
이런
기적조차도

모든 시대의 땅딸보가
만들어 냈지 —

우리는,
집단의 땅딸보들.

근육을
마디로
묶게.

칼날 같은 이빨 —

지식 속에 —

잘게 부수어 쪼개나.

레닌은 —
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건설하고,

파괴하며,

재단하고

잡아 찢으며,

잠잠해지고,

들끓고

거품 일며,

웅성거리고,

말하며,

침묵하고

울부짖네 —

청년 군대는:

레닌주의자들.

우리는

도시 혈관들의

새로운 피,

논밭의 몸뚱이,

방직공장 사상의

실오라기.

레닌은 —

살아남았고,

레닌은 —

지금도 살아 있으며,

레닌은 —

영구히 살아남을 것이네.

1924년 3월 31일

출처 : <http://lodong.org/wp/archives/14062>

- dc official App